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18년 9월 23일 (넷째 주일)

성경본문 : 행21장 1-6절

설교제목 : “성령의 감동으로”

찰스 스탠리가 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란 책에서 시편 81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한 인간에 대한 슬픈 이야기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 계속해서 **내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을 향해 **내 말을 들으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향해 수없이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은 ‘**하나님 직접적인 계시**’, ‘**꿈**’, ‘**환상**’, ‘**기록된 말씀**’, ‘**선지자**’, ‘**환경**’, ‘**천사들**’이었습니다. 반면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사람들**’과 ‘**환경**’과 그리고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와 같습니다. 1절에 보면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본문에 ‘**작별하고**’로 번역된 ‘**아포스파오**’의 뜻은 ‘**잡아 떼어놓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할 때, 헤어지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억지로 떼어놓고 떠났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어려운 이별을 한 바울의 일행은 배를 타고 **고스**로 갔습니다. **고스**는 의의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의 출생지였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고스**를 떠나 **로도**에 이르렀습니다. **로도** 섬은 장미의 섬이라 불렀는데, 일조량이 풍부하여 장미가 화려하게 피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태양신인 헬리오스의 신상인 콜로수스가 있었습니다. 콜로수스는 거대한 조각상란 뜻입니다. 그리고 **로도 섬**에서 배를 갈아탄 바울은 다시금 **바다라**는 항구로 갔습니다. **바다라**는 해상무역항구도시였는데, 아폴로 신탁소가 있는 곳으로 유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다라**에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탔습니다.(2절) ‘**베니게**’로 번역된 ‘**포이니켄**’은 ‘**페니키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바다라**에서 지중해를 건너 **베니게**까지의 뱃길은 약 650km가 됩니다. 이 거리는 당시 선박으로 일주일이 걸리는 거리였기에 상당한 규모의 상선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바울은 이러한 배를 찾았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선을 타고, 무사히 **두로**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바울이 이용한 상선은 곡물 혹은 과일을 운반하던 배였을 것으로 봅니다. 당시 곡물이나 과일 같은 짐들을 내리고 또 다른 짐들을 싣는데 보통 1주일이 걸렸기 때문에 바울은 **두로**에서 1주일의 여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두로**에서 이레를 머물게 된 바울은 **두로**에 있는 제자들을 찾았습니다.(4절) 그런데 바울이 **두로**에서 만난 제자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계속 반복해서 만류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은 그들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로의 제자들은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들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 어떻게 해야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행2:16-18)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선택되어진 사람들에게 임하였는데,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나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요하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분주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시62:5에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좇아 나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성령님의 음성을 바라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잠히 성령을 바라는 시간은 성경을 읽는 시간도 포함됩니다. 성령은 듣는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야말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거룩한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것이 진짜 성령의 음성인지 아니면 다른 소리를 착각하는 것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음성이 성령의 음성인지, 내 자아의 소리 혹은 내 양심의 소리인지, 아니면 사탄의 소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찰스 스탠리의 성령의 음성을 구분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성령의 음성은 결코 우리들이 성경에 위배되는 어떤 활동을 하거나 관계를 가질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알수록 우리들의 성령의 음성을 더욱 잘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모순이 되는 것은 성령의 음성이 아니므로 모두 버려야 합니다. 둘째, 성령의 음성은 우리의 육체적 소욕을 만족시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음성이 우리의 육체적 소욕을 만족시키고, 다른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은채 우리 편한 대로만 할 것을 주장하면 그것은 결코 성령의 음성이 아닙니다. 셋째, 성령의 음성은 항상 우리들의 믿음에 도전을 주고, 우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정립하게 만들고, 우리들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들이 영적으로 후퇴하도록 만드는 요소가 있는 것에 관해서는 결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넷째, 성령의 음성은 우리의 영혼을 고요하게 하고 평안하게 만듭니다. 요일4:1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시대가 어둡고 악할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해로운 소리가 더욱 많아집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유혹의 소리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사탄은 종교적인 언어로 메시지를 가장하여 우리를 속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음성과 사탄의 소리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결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 살펴보기

- 1)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 2) 성령의 음성을 구분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말씀 나누며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사십니까? 당신은 성령의 음성에 어떻게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